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서양 분석철학 연구를 하고 있는 박수영(박사 7기) 씨를 만났다.



지난해 부정투표로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이후, 오늘부터 총학생회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 부정투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비했는지 들어본다.

# 대학주보

## 위조 진료확인서로 공결 신청... 학내 유포 정황도 대학 징계 · 형사처벌도 가능... 처방전 첨부 등 보완 필요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천유정 기자 estherchun0007@khu.ac.kr

【국제】 학생 사이에서 특정 병원의 진료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 가능한 파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 파일은 병결 관련 공결 신청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해당 파일에는 학교 인근 A병원의 기관 및 원장 직인이 새겨져 있어 ▲인적사항 ▲날짜 ▲진료 사유만 입력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배부받은 것처럼 쉽게 위조가 가능했다.

A병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한 바 없다며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교수 쪽에서 진료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문의할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병결에 대한 공결 신청은 인포21을 통해 가능하다.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감사의 판단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수들은 진료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디자인대학 윤민희(조형예술학) 교수는 "반복적으로 같은 병원의 진료확인서가 제출되면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병원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응용과학대학 일부 수업에서는

교수가 해당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 공결 신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박혜진(문학) 교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병결은 모두 인정하는 편"이라며 "진료확인서를 꼼꼼히 보는 것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 서류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뢰와 정직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료확인서 위조가 적발될 경우 학생들은 학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 학생지원센터 구영준 차장은 "학생이 첨부한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 본교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칙 제70조(징계)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좋은생각의 정성주 대표 변호사는 "진료확인서 파일을 허위로 제작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

진료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만 0세)
주소	
병명	
통원	20XX년 XX월 XX일 20XX년 XX월 XX일 (X일간)
실통원일자	20XX년 XX월 XX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함.	
발행일 : 20XX. XX. XX.	
요양기관명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전화번호	(031) 이브서비스 이비인후과
원장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진료확인서 위조 파일

가 성립할 수 있다"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진료확인서 위조 파일을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박나우

(프랑스어학 2024)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진료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도 교수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몇몇 학생들은 결석 처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진료확인서 양식이 위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통에 위치한 김춘동이비인후과의 한 간호사는 "진료확인서는 비교적 위조가 용이한 서류"라며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위조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마 한유희(문화콘텐츠학) 교수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뤄질 경우 교수가 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민환(천문학) 교수는 "학교 측에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태를 모르는 교수들도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성실하게 출석하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측은 "위 사례를 단과대학 및 교감사에게 공유하고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캠 보궐선거, 총학생회 루트 선본 당선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2026학년도 총학생회 단위 보궐선거 연장투표에서 루트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정재우(Postmodern음악학 2021) 정후보와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후보가 당선됐다.

개표는 지난 27일 18시 30분경 학생회관 232호에서 이뤄졌다. 본래 투표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이었으나,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총학생회 선거구 투표율이 투표 마

감 시각인 18시 기준 44.48%를 기록하며 개표 요건인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선거시행세칙 제6장 45조 1항에 따라 총학생회 단위 보궐선거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돼 27일 18시까지 진행됐다. 총학생회 단위 보궐선거 1차 연장투표는 투표 마감 시점

51.0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표 요건을 충족했다. 루트 선본은 찬성 4174표(89.26%), 반대 211표(4.51%), 기권 291표(6.22%)로 당선됐다.

정재우(Postmodern음악학 2021) 총학생회장 당선인은 "투표에 참여

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가져주신 관심 만큼 열심히 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편, 학점지우개 등 내용은 공약들을 모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은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